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태), 1176 FAX.(02)726-1292

www.sdi.re.kr

<h1>세계</h1>	<h1>3</h1>
<h1>도시동향</h1>	2000년 7월 3일

## HEADLINE NEWS

###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우선순위 결정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시 예산 및 재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시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는 응급의료, 경찰, 도서관 개장시간의 연장, 낙서 지우기, 도로 재포장 사업 등 광범위한 시정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www.lacity.org/councilcmte/budget/index.htm](http://www.lacity.org/councilcmte/budget/index.htm))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장마철 지하공간 침수대책 수립 (동경)
- ② 교량을 도시 이미지 창출수단으로 활용 (베를린)

### 도시환경

- ③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림대 조성 (북경)
- ④ 하천오염과 수해를 막는 '우수유출 억제형 하수도' (동경)
- ⑤ '녹색자오션' 기념사업 진행중 (파리)
- ⑥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열섬효과 억제 프로그램 (시카고)

### 도시교통

- ⑦ 대기오염의 '주범', 디젤자동차 추방 제안 (동경)

### 사회복지

- ⑧ 학교인접지에 교사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샌프란시스코)

### 행.개정

- ⑨ '동경 2000년 축제' 진행중 (동경)
- ⑩ 하수도 사업에도 행정평가제도 도입 (동경)

### ① 장마철 지하공간 침수대책 수립 (동경)

東京都에서는 최근 지하철과 지하도 등 지하공간의 침수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 동경소방청, 총무국 등 관계기관을 망라, '지하공간 침수대책 검토회'를 구성하여 침수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하도·지하철과 지하실 등의 안전 확보는 각각의 시설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행정은 각 관리자에게 유효한 정보 제공과 계발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확보를 지원하고 침수상태를 파악하여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침수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시책은 첫째, 최근 10년 동안의 침수상태와 지하공간의 소재위치를 명시한 区市町村別 浸水実績圖를 공표하고, 둘째, 호우·홍수 주의보 및 경보 발표시 우량·기상정보를 지하철과 지하도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셋째, 하수도의 긴급중점우수대책의 일환으로 '우수정비 Quick Plan'을 실시하고, 넷째, 都民들이 일상 생활에서 홍수에 대해 방재 의식을 갖고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발 활동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東京都 廣報 6월호)

### ② 교량을 도시 이미지 창출수단으로 활용 (베를린)

베를린시 동서 경계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은 항상 많은 교통량이 집중됨으로써 노후에 따른 해체 또는 보수공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동베를린시 지역은 긴급한 통행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수의 교량이 광범위한 보수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량들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 베를린시는 교량 개조 전문가, 건축가 등의 협조를 얻어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역사성을 공유한 교량으로 탈바꿈시켜 오히려 도시 이미지 창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www.bau.berlin.de/bauen/ueberbruecken](http://www.bau.berlin.de/bauen/ueberbruecken))

### 3]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림대 조성 (북경)

중국 하북성은 사막화 및 북경의 생태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인근 張家口(장자커우), 承德(청더), 廊坊(랑팡)의 3개 도시에 생태림대(生態林帶) 3개와 방풍림 3곳을 설치하는 이른바 ‘삼대삼편(三帶三片)’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북경 일대는 50년이래 최악의 황사현상을 겪었는데, 그 진원지는 서북부 고비 사막이었다. 내몽골에서 북경으로 날아오는 황사량은 무려 100만톤에 이르며, 황사가 극성을 부리면 일부 지역에 500미터 높이의 엄청난 황사벽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50~70년대엔 1,560km<sup>2</sup>/년, 80년대엔 2,010km<sup>2</sup>/년, 90년대엔 2,460km<sup>2</sup>/년을 기록하는 등 점점 증가추세이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곧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亞洲週刊, 6.12~6.18)

### 4] 하천오염과 수해를 막는 ‘우수유출 억제형 하수도’ (동경)

東京都에서는 지하수 함양, 하천유량 확보, 도시형 수해방지에 관한 대책으로 ‘우수유출 억제형 하수도’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천시에 우수가 하수도로 유입되기 전에 땅속으로 침투시켜 하수도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다. 東京都는 이 시책을 합류식 하수도지역에 실시하여 월류수(Overflow)에 의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도 종량천 물고기 폐사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동경도청 자료)

### 5 '녹색자오선' 기념사업 진행중 (파리)

파리시에서는 현재 '녹색자오선' 기념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는 프랑스 북부의 항구도시인 Dunkirk로부터 스페인의 Barcelona까지의 자오선을 따라 나무를 심는 대규모 식수 행사이다. 이 국제적인 기념 식수는 건축가 Paul Chemetov가 창안하였으며, 유럽의 남부와 북부의 사람들을 연결시킴으로써 국가의 다양성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1999년 11월 25일 파리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의 정수인 어린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식수 사업의 또 다른 행사로, 오는 7월 14일에 자오선을 가로지르는 모든 거리에서 대규모의 소풍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www.paris-france.org/Parisweb/EN/Paris2000](http://www.paris-france.org/Parisweb/EN/Paris2000))

### 6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열섬효과 억제 프로그램 (시카고)

시카고시에서는 현재 도시열섬효과의 억제, 시카고 미화, 일반시민의 교육을 위해 녹색개념을 중시하는 참여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의 주목적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 대기온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전력소비 감소, 대기오염 저감, 녹지공간 확충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특히, 열섬효과 억제 프로그램은 옥상공원 조성, 건물지붕 색깔 및 건축재질 선별, 콘크리트 주차장의 녹지공간화, 잔디보호식재(Grasscrete) 및 침투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녹지공간의 부족 및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증가로 발생하는 도시열섬효과는 안락하지 못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www.ci.chi.il.us/Environment/AirToxPollution/UrbanIslands.html](http://www.ci.chi.il.us/Environment/AirToxPollution/UrbanIslands.html))

### 7 대기오염의 '주범', 디젤자동차 추방 제안 (동경)

東京都는 최근 디젤자동차가 물류나 주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都民 대상으로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東京都내에서는 디젤자동차를 타지도, 구입하지도, 팔지도 말 것. 둘째, 대체가능한 업무용 디젤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로 대체 의무 부여, 셋째,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개발을 서두르고, 디젤자동차에 장착 의무화할 것, 넷째, 경유를 가솔린보다 값싸게 하는 세금 우대정책을 시정할 것, 다섯째, 디젤자동차 배기가스의 新長期規制(2007년 목표)를 해결하는 자동차의 조기개발로 규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東京都는 향후 디젤자동차 대책의 추진방안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주민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물의를 확립하고 조례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동경 대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며, 이 중 디젤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디젤자동차의 주행량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약 70%를, 부유입자상물질(SPM)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www.kankyo.metro.tokyo.jp/dno/body.html](http://www.kankyo.metro.tokyo.jp/dno/body.html))

([www.metro.tokyo.jp/INET/CHOUSA/2000/03/60A3T3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0/03/60A3T300.HTM))

### 8 학교 인접지에 교사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앞으로 교사들에게 학교로부터 근접한 지역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땅값이 비싼 도시 학교지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교사들의 이직과 전근을 일정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저임금 및 공공임대주택을 받는 직업으로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www.latimes.com/news/state/20000618/t000057789.html](http://www.latimes.com/news/state/20000618/t000057789.html))

### 9 '동경 2000년 축제' 진행중 (동경)

현재 東京都에서는 동경이 가진 매력과 역동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동경 2000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축제사업은 東京都와 区市町村, 동경상공회의소, 민간기업, 지식인들로 구성된 '동경 2000년 축제 실행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년 동안 다양한 이벤트, 음악회, 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스미다가와(隅田川)강에 띄워놓은 선상에서 '江戸, 東京文化歳時記'가 개최되었고, 5월에는 동경에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세계아동 교류 음악회'가 열렸다. 또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 동경관광지를 발굴하는 'Tokyo 감동이야기'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 가을에는 프랑스가 우호기념으로 기증한 '자유의 불꽃'상을 臨海부도심에 설치하며, 겨울에는 자유여신상 複寫 작품을 台場海浜公園에 설치하고, 동경 항만에 21세기 무지개 다리를 만들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6. 22)

### 10 하수도 사업에도 행정평가제도 도입 (동경)

東京都 하수도국은 올해부터 하수도 사업성과를 都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행정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수도 냄새 및 집중호우 때의 침수에 관한 민원건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 '고객 리포트'를 작성하여 매년 발표하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시킨다. 아울러 사업집행상의 문제점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액션 리포트'와 하수도관의 유지관리비용 등 경영 측면에서 파악한 '경영 리포트'도 작성한다.

(日本經濟新聞, 6. 16)